유권자 '눈'

새천년 벽두부터 16대 총선고지를 향한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이번 총선에서는 올바른 선량을 뽑기위한 유권자의 한표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 <15대 총선에서 단상후보들의 연설을 귀담아 듣는 촌로들의 모습>

경북 최대격전지 포항북 예측불허

○… 오는 4월13일 치러질 제16대 국회의원선거가 불과 100여일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가 새천년 벽두부터 부쩍 빨라지고 있다.
○… 각 출마예상자들은 상대정당 후보와의 격전에 앞서 우선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예비선거에 더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 더욱이 이번선거는 선거법개정으로 원내에 진입하기 위한 난관이 더 많아졌고 선거구도 줄어들어 불꽃 튀기는 한판 승부가 예견되고 있다.
○… 또 이번 선거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과거 불신의 정치가 아닌 달라진 새정치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기대감속에 실시돼 그 의미가 크다.
○… 본지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총선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선거구별 대결구도등을 특집으로 기획했다.
○… 선거구는 소선거구제기준이며 순서는 경북동부권, 경북중부권, 경북북부권, 대구권등으로 게재된다. <편집자 주>

① 동부권

포항·경주·영천·청송·영덕 울진·봉화·영양·울릉지역

포항북 박태준·허화평씨등 거물급 포진
경주을 이원식 경주시장 출마여부 변수
청송·영덕 김중권씨 TK 교두보 마련 관심

경북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곳이 바로 포항 북구.

자민련 박태준총재와 15대 총선에서 옥중당선의 저력을 보인 허화평전의원에다 한나라당 이병석위원장이 가세, 예측을 불허할 전망이다.

박총재의 출마 여부에 따른 선거구도 변화도 흥미거리. 박 총재가 후임 총리에 기용될 경우 전국구로 나서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 경우 박 총재를 대신해 박기환전시장과 최종태 자민련중앙청년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들은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박총재지구당관계자들은『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총재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도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병석 위원장은 지난 보선 이후 꾸준히 바닥표 훑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위원장은 30~40대의 청·장년층을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부지런히 농어촌 표밭을 누벼 지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허 전의원은 의원직을 잃은 뒤 97년 포항연구회사무실(북구 동빈동)을 열고 모교인 포항고 동문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등 지지기반을 다져왔고 최근 김용환의원과 공조로 벤처신당 창당의 기치를 내걸어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회의 북구지구당에서는 박성태·서종렬씨가 지구당위원장 신청을 해놓고 있으나 출마는 불투명하고 국민회의소속 이준형씨가 자신의 출마를 스스로 선언해 놓고 있다.

포항 남·울릉은 한나라당 3선인 이상득의원이 4선도전에 나서 당정책위의장까지 지낸 중진의원으로서 자신이 성취한 지역구 공약과 개발정책을 꾸준히 홍보하면서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 자민련강석호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던지고 있다.강위원장은 정계 세대 교체의 주역을 자임하고 있으며 시의원과 경북도의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정치인과 달리 청·장년층을 겨냥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회의는 현재 김만철 전 지구당위원장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새포항시민회의 대표 김병구씨가 출마를 결심하고 지구당 위원장 신청을 해놓고 있다.

경주 갑은 한나라당 김일윤의원이 12대·13대·15대에 이어 4선에 도전한다. 자민련은 13·14대 의원을 지낸 황윤기위원장이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15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정종복변호사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영덕군수를 지낸 정홍교국무총리실 민원비서관도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있다.

경주 을은 한나라당 임진출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임의원은 당공천을 확신하면서 틈나는 대로 지역구행사 등에 참석,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고 여기에 14대보궐에 당선됐던 자민련 이상두위원장이 도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관수위원장이 조직 정비를 통해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출마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신당에 참여한 안강출신 황수관 박사와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측근인 이정락 변호사, 백상승 전 서울시장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원식경주시장의 출마여부도 막판 변수고 이종웅국가정보원 전 포항소장도 거명되고 있다.

영천은 한나라당 박헌기의원이 14대와 15대에 당선된 데 이어 3선을 노리고 있다. 박의원은 영천 지역의 반 여권 정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3선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있지만 자민련에서는 최상용위원장이 출마채비를 하고 지구당정비에 한창이어서 만만치 않다.

국민회의 이육만위원장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출마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 12·13대 의원을 지낸 정동윤배제대 교수가 공동여당 공천을 전제로 출마를 검토중이다. 12대 이후 줄곧 출마했던 조병환씨와 경주 김씨 영천종친회장인 김만하씨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영덕·청송선거구에서는 최대관심사가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다. 김전실장의 출마로 여권의 동진정책 성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나라당 김찬우의원외에 자민련 김성태위원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회의 영덕·청송 지구당은 현재 사고지구당으로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그러나 조원봉씨가 정계의 젊은피 수혈을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개인사무실을 내고 신당 공천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뛰고 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인 김현동씨와 남병집경희대 교수, 조영길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울진·영양·봉화 지역은 한나라당 김광원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국민회의 소속 군수가 당선됐지만 갈수록 한나라당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여기에 14대 의원을 지낸 자민련 이학원 위원장이 경
쟁자로 나선다.

국민회의는 울진에 지구당사무실을 두고 있는 다른 정당과 달리 영양에 지구당사무실을 두고 울진·봉화에 연락소를 두고 있는 류상기위원장이 조직 정비를 하면서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영양출신의 윤영호남해화학사장, 14대 영양·봉화 지역 의원이었던 강신조씨, 11대~13대 의원을 지낸 오한구씨의 출마도 거론된다.

【이한웅기자】

포항북

▲박태준(자·73)=육사 미국 카네기대박사 전 포철회장, 11대 13~15대의원 자민련총재

▲이병석(한·48)=동지상고 고려대정외과 청와대비서관 현 지구당위원장

▲이준형(국·44)=청하초등 한동대 경영학과재학 여권신당 준비위원

▲허화평(무·63)=포항고 육사 17기 전 대통령정무수석 14·15대 의원

영 천

▲박헌기(한·65)=대창초등 독학 전 대구지법판사 한나라당경북도지부장, 15대의원

▲최상용(자·62)=동아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지구당위원장

울진 봉화 영양

▲정동윤(무·63)=고려대법대 12,13대의원 배재대교수

▲김태원(무·54)=계성고 고려대 의대 성신의원원장

▲김광원(한·60)=계성고 서울대 법대 전 경북부지사 15대의원

▲류상기(국·62)=검정고시 전 경북도의원 지구당위원장

▲이학원(자·65)=춘천고 부산대 14대의원 지구당위원장

▲장소택(여신·68)=울진종고 중앙대 신당창당준비위원

▲박영무(무·44)=서울고 서울대 미시간대박사 아주대교수

▲홍성태(신당·44)=서울 영훈고 단국대행정학과 신당준비위원

포항남 울릉

▲이상득(한·64)=동지상고 서울대상대 전 코오롱사장 한나라당정책위의장 13~15대의원

▲강석호(자·45)=중동고 외국어대 (주)삼일부회장 도의원 지구당위원장

▲김병구(무·53)=경북대 전 노총경북지부장 새포항시민회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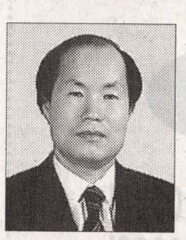
청송 영덕

▲김찬우(한·67)=계성고 경북대의대 영덕제일병원이사장 11,14,15대의원

▲김중권(여신·62)=고려대 법대 서울대학원 3선의원 전 국회 법사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태(자·58)=국민대대학원 (주)한국가공 지대표 지구당위원장

▲김현동(한·53)=경북고 서울대 전 세종연구소연구원 여의도연구소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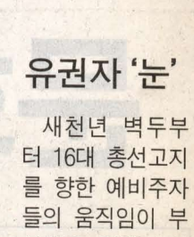
▲안기희(한·61)=영덕중·고 단국대 경기대겸임교수

▲이상도(무·59)=대륜고 성균관대 법대 (주)수도환경 대표

▲박종욱(무·55)=안동고,동아대 현 경북도의원(2선)

경주갑

▲김일윤(한·62)=경주고 외국어대 경주대총장 12 13 15대의원



▲황윤기(자·67)=경북고 고려대 13 14대의원 지구당위원장

▲정종복(무·50)=부산고 서울대법대 서울지검 검사 국회전문위원 변호사

▲정홍교(무·59)=대구상고 건국대 전 영덕군수 국무총리실 민원비서관

경주을

▲임진출(한·59)=경주여고 경희대 정외과 전 국제신문기자 15대의원

▲이관수(국·48)=조선대 15대 총선 경북선대본부장 지구당위원장